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2018. 1. 28.(나해) 제2090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o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마르 1,25-26)

측은히 여기시어...

대구대교구에서는 어려울 때에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교구를 중심으로 들꽃마을과 함께 2012년부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남종우(그레고리오) 신부와 배재근(프란치스코) 신부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뛰어들어가자마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내전의 소용돌이에 다시 휘말려 들었습니다. 구석구석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함께하고자 했던 마음과는 달리 매일 매시간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들고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부님들은 밤마다 가만히 사제관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사제관에서 몸을 움츠리고 숨어서 오직 성경을 읽고 한글로 번역하고 아프리카어 사전을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재작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추기경님께서 고령 들꽃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전체를 통틀어 한국 사람은 수녀님 몇 분과 신부님 두 분 뿐인데 우리 신자들이 밤에 총소리를 들으면 신부님들이 계신 사제관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가만히 있고, 불이 꺼지면 모두 잠을 싸고 도망을 갑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에서 와서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있어 준 신부님들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를 회고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였지만 신자들에게는 사제관의 불빛이 어둠 속에 빛나는 생명의 빛과도 같았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어...” 일어나 다가가 “울지 마시오.”(루카 7,13)하시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마르 6,34), “손을 펴 만지시며 깨끗하게 하시고”(마르 1,41), “눈을 뜨게 해주시오”(마태 20,34),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 14,14-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둠의 내전이 끝나고 낮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할 때가 왔습니다. 두렵고 아픈 마음을 함께하였던 시간을 일상에서 계속 이어 가야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낮이 되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 다가가 위로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그들을 살려주소서!” **필로**

이병훈 세례자 요한 신부 | 들꽃마을 원장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다른 이들도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맞이한 해외 원조 주일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 사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려질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강력하게 일깨워 주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적 혼란, 종교 간의 대립, 인종 차별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박해나 분쟁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풍요로움과 안전과 희망을 주는 삶의 터전인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의 삶이 박해와 분쟁으로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분쟁과 박해로 발생한 난민의 수가 6,5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분마다 20명의 새로운 난민이 발생하고 있지만(유엔난민기구, 2016년 통계 참조), 난민 발생 지역 주변국들에서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 또한 증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버리고 환대할 수 있는 ‘만남의 문화’(Culture

of Encounter)를 우리 교회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시면서, 2017년 9월 27일 “난민의 여정에 함께 합시다.”(Share the Journey)라는 주제로 난민을 위한 캠페인을 선포하셨습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국제 카리타스 164개 회원국들과 함께 한국천주교회의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해외 원조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한국교회 신자들의 정성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고향을 잃어버린 나이지리아, 니제르, 남수단, 부룬디, 부탄, 미얀마, 시리아, 수단,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의 난민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난민에게 작은 희망이 시작되었고 그 희망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난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도 한국천주교회는 난민이 희망을 키우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 세계 난민과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만남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28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김 운 회 루카 주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박준환 베드로 신부 | 성김대건본당 보좌

“부제님은 왜 신학교에 가셨어요?” 부제시절 참 많이 듣던 질문이었습니다. 답하기 무언가 부끄러운 나머지 “그냥요.”라고 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사제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은 것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당에 나갔고, 신부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사제 성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언제 뿌려졌는지도 모를 그 씨앗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예비신학생 모임을 나가면서 사제 성소의 씨앗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능과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때였지요. 당시의 저는 사제 성소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언가 확실한 표징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한티순교성지에서 예비신학생 여름 피정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피정 중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성체 조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절실했기에 열심히 예수님을 부르며 성전 앞에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이 아른거리면서 마치 저에게 어떤 표징을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표징은 확고하게, 때로는 엄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흔들리고 있는 저를 바로 잡아주려는 눈빛처럼 말이지요.

저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느낌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 체험은 끝이 났습니다. 그 순간, 닫혀 있던 제 귀에 성전 안에 들려져 있던 묵상곡 가사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성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너를 이곳에 불러 세웠다. 지금 이 곳에 와 있는 너는 이미 내 부름에 응답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성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을 만났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이 바로 성소의 확실한 표징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필로**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부정 신학 否定神學 <라> apophatismus <영> apophatism, apophatic theology

예컨대, 하느님은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의 방법(否定方法: via negativa)으로 전개하는 신학을 “부정 신학”(apophatismus)이라 하고, 이에 대비되는 신학으로서 하느님은 무엇이라고 하는 긍정의 방법으로 전개하는 신학을 “긍정 신학”(kataphatismus)이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뉘우침(통회) <라> attritio <영> attrition

죄의 추악함이나 죄인을 위협하는 영벌과 다른 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기는 통회를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3항 참조)

비밀 투표 선출 秘密投票選出 <라> electio per scrutinium <영> election by secret ballot

과거에는 세 가지 교황 선출 방법이 있었고, 이들은 각각 “전원 일치 호명 선출”(per acclamationem seu inspirationem [quasi ex inspiratione]), “선정 위원 위임 선출”(per compromissum), “비밀 투표 선출”(per scrutinium)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비밀 투표 선출 방법만을 사용합니다.

비의 秘義 <라> anagogia <영> anagogy

성경의 영성적 의미를 찾는 고등 해석의 한 개념인 anagogia를 “비의”(秘義)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용어 사용에 따라 analogia는 “유비”(類比) 또는 “유추”(類推), allegoria는 “우의”(寓意) 또는 “우화”(寓話)라고 합니다.

사도 전래성 使徒傳來性 <라> apostolicitas <영> apostolicity

“사도 전래성”은 교회가 사도들 위에 세워졌고 사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도 전래성, 곧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는 것은 첫째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시고 선교에 파견하신 증인들인 “사도들의 기초”(에페 2,20) 위에 세워졌다는 것, 둘째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유산, 사도들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보존하고 전한다는 것, 셋째로 교회는 사도들의 사목직을 이어받아 그들을 계승하는 주교단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교단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회의 최고 목자와 하나 되어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57항 참조)

사도좌 使徒座 <라> Sedes Apostolica <영> Apostolic See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주교좌를 말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교에 대한 법률적, 사목적 최고 권위를 가진 교황의 직위를 말합니다. 이 명칭은 교황과 교황청을 함께 일컬을 때에도 씁니다.(교회법 제361조 참조) “사도좌”의 별칭으로 “성좌”(Sedes Sancta, Holy See)를 사용하는 국제 사회의 관례를 존중하되, “성청”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교황청”(curia romana)이라고 합니다.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신명 18,15-20	제2독서	1코린 7,32-35	복음	마르 1,21-28.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 | | |
|-----------------------------------|-----------------------------------|
| 1. 21(일) _ 제27회 성 이윤일 요한제 순교 기념미사 | 1. 21(일) _ 제23회 청소년 윤일 축제 |
| 1. 25(목) _ 다카야마 우콘 저자 강연회 및 출판기념회 | 1. 25(목) _ 다카야마 우콘 저자 강연회 및 출판기념회 |
| 1. 27(토) _ 성 이윤일 시성 34주년 기념 세미나 | 1. 27(토) _ 성 이윤일 시성 34주년 기념 세미나 |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 교구 소람상담소, (053)250-3100

북타입 스마트 탁상용 신앙캘린더 판매



판매가 : 7,000원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6~9

판매처 : 교구 문화홍보국, 성바오로 서원, 성바오로딸 서원,

성바오로딸 범어 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꿀라따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범어대성당 성물방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질병과 기아로 고통을 겪는 빈민국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29일(월) 10:30 범여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2월 3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2월 3일(토) 11:00 성모당	-	-

대리구

3대리구 전례꽃꽂이 초급·중급반 개설

초급: 3.8(목) 매주 목 13:00~15:00

중급: 3.9(금) 매주 금 13:00~15:00

장소: 3대리구청

수강료: 40만원(16주)

문의: (010)9206-6280 / 641-5678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2.4(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2.3(토) 10:00, 진량성당

일정: 영성특강, 찬양미사,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아고보) 신부

서틀: 영남대역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향심기도 소개 피정

기간: 2.10~11 / 2.24~25(1박 2일)

장소: 평화계곡피정의집

(소울스테이)

대상: 기도하고 싶은 분 누구나

문의: (010)5332-7587

대구 예수마음기도 피정

일시: 2.23(금) 10:0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대구 파동)

대상: 하느님의 깊은 만남을 원하는 분

문의: 김마리아 수녀, (010)2505-9545

최봉도 신부 희망기도 2박 3일 피정

기간: 3.16(금)~18(일) / 4.13(금)~15(일)

장소: 경기도 안성시 미리내성지 내 묵

상의 집 / 주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방법

문의: 전 크리스티나, (010)6254-0057

교육 | 모집 | 기타

황금배경 이론화(템페라) 기초과정 모집

기간: 3.7~6.6 매주 수 10: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 14주

문의: 대가대평생교육원, (010)9550-2530

썬벨 청년 성경 공부 마르코 복음서 개강

일시: 3.7(수) 19:30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말씀살이방

문의: (010)5925-5508

로사리오 기숙생 모집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31길 5-16

대상: 여대생

주최: 로사리오성모의도미니코수녀회

문의: (02)741-3071 / (010)9333-4532

김천 월명성모의집 어르신 모집

성모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보금자리

문의: 노인복지주택, (054)434-2898

노인전문요양원, (054)435-8122

아씨시 세계 젊은이 대화와 성지순례

기간: 8.11(토)~23(목) 12박 13일

장소: 로마~아씨시~루르드~파리

대상: 만 35세 미만 미혼 남녀(선착순)

문의: 프란치스코수도회, (010)4824-1443

2018 부산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제3기

중독전문가 2급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 3월~11월 매월 2, 4주 토요일

10:00~17:00 / 문의: (051)510-0952

<http://edu.cup.ac.kr>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oakinternational.co.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or.kr>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반
(목주반지 · 감사선물 · 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재입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

중증/치매/재활/말기암/노인성질환
명덕효요양병원

- 24시간 간병서비스 · 경제적 치료비
-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 실시
- 특수 고주파온열치료기 도입

병원장 변 숙 영(세라피나)
명덕역-교대역 사이 ☎ (053)476-0000

34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민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3.0T MRI, CT / 위, 대장 내시경
공단검진 지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백영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천전동)

김&송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 의 수 윤 소(피 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2월 1일(목)은
(故) 김영환(베네딕도) 몬시뇰
선종 4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동계 젊은이 성령 세미나

기간: 2.9(금)~11(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만 19세~40세 청년
신청: <http://dcy.co.kr>
주최: 교구 청년국 젊은이 기도회
문의: 최정애, (010)4942-0918

교육 | 모집

소람상담소 재능기부 상담전문가 모집

자격: 해당분야 석사 과정·2급 수련 이상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자소서
제출: kim-sinbu@hanmail.net
문의: 소람상담소, 250-3101

더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358차 ME주말: 2.23(금) 19:00~25(일)
359차 ME주말: 3.23(금) 19:00~25(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모세오경에서 만나는 하느님

기간: 3.8~6.14 매주 목 10:00~12:00
장소: 가톨릭문화관 2층 강당(교대역 앞)

강사: 정 아녜스 수녀(샬트르성바오로)
수강료: 3만원(한 학기)
신청: 가톨릭문화관, 476-6211

제30기 대구가톨릭음악원생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2018년 겨자씨 성서 신입생 모집

개강: 본과 2.26(월) / 심화반 3.5(월)
본과: 구약반 (수) 10:00 / (수) 20:00
신약반 (화) 10:00 / (화) 20:00
심화반 (화) 10:00 / (수) 20:00
문의: (010)4106-4627 / (010)6520-4627

2018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마감: 2.28(수)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성당 뒤)
대상: 만 53세 이하의 가톨릭신자
지원자 O.T: 3.3(토) 14:00
문의: (010)3839-9203

55차 본당 맞춤형 선교대학 개강

일시: 3.24(토) 10:30~16:00
장소: 계산문화관
신청비 무료, 중식제공
주관: (사)가두선교단, 781-6100

말씀학교 영성강좌(바오로시간 / 무료)

일시: 2.23(금) 10:00~12:30 / 연 33주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
매주 미사있음

강사: 양은철 신부(성바오로수도회)
문의: (010)9333-6260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21~6.19 매주 화
주 1회(선착순 접수)
문의: 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7기 원우 모집

개강: 3.19(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간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채용 | 안내

청도 성모솔숲마을피정의집 오픈

매일 오전 11시 미사가 있습니다.
1인 1실, 2인 1실 사용 가능
위치: 청도군 각북면 송내길 166
담당: 박상호(요한) 신부
문의: (054)373-395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8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2018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대구연세안과

·백내장수술 ·아이디자인 라식
·노안 수술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외래교수

☎(053)626-8881~5

34년 전통 코리야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털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삼성 인터리어 필름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보건복지부 국가 지정 의·한협진시범병원

전인병원

암 / 암성·만성통증 / 재활
053) 670-6000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비즈니스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